

동해로 뻗은 벼랑 끝 위에 중생 번뇌 끌어안는 관음의 미소가...



동해의 녘실대는 파란물결이 눈앞에 펼쳐지는 양양 낙산사는 1300여년 전 의상대사가 창건했다. 저 멀리 벼랑끝 위에 의상대사가 좌선 수행을 했던 의상대가 보인다. 요즘은 세인들에게 일출을 맞이하는 곳으로 더 알려져 있다.

④ 해수관음도량...양양 낙산사



사찰에도 만일 색깔이 있다면 강원도 양양 낙산사는 푸른색일 것이다. 동해의 녘실대는 파란 물결이 바로 눈앞에 있어서이다. 바다라는 빼어난 풍광은 절 특유의 고즈넉함과 어울려 아름다운 경치를 연출한다. 낙산사에서 만난 외국인들이 “원더풀(Wonderful)”과 “뷰티풀(Beautiful)”을 연발하는 것도 결코 오버액선이 아니다.

낙산사는 이 처럼 경내 어디서나 조금만 높이를 올라가면 바다가 보인다. 일주문을 지나 해송(海松) 숲길을 따라 사찰 안으로 들어가면 해도 깊은 산자락에 들어서는 듯했다. 하지만 오봉산 중턱 원통보전 앞에 서니 시원스레 동해바다가 펼쳐진다.

사람으로 따지면 미스코리아급 풍모를 자랑하는 낙산사에도 화마가 닥쳐 2005년 경내와 일부 성보 문화재들이 전소됐다. 하지만 단원 김홍도가 그린 '낙산사도'와 발굴 조사를 근거로 최근에는 원형에 가깝게 복원됐다.

낙산사에 갈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1300년 전 의상대사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지세를 발견했을까 의문이 든다. 의상 대사를 이끈 힘은 다름 아닌 관음보살이었다고 전해진다. 의상 대사가 관음보살 친견을 위해 낙산사 동쪽 벼랑서 27일 동안 기도를 올렸으나 뜻을 못 이루자 낙산해 바다에 투신하려 했다. 그때 바닷가 굴 속에서 희미하게 관음보살이 나타나 여의주와 수정염주(水晶念珠)를 건네며, “나의 전신(前身)은 볼 수 없으나 산 위로 수백 걸음 올라가면 두 그루의 대나무가 있을 터이니 그곳으로 가보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는데 그곳이 바로 지금의 원통보전 자리라고 한다. 원통보전에는 조선시대 만들어진 건칠관음보살좌상(洛山寺乾漆觀音菩薩坐像)이 독존으로 모셔져 있다. 장지에 옷칠을 한 관음상은 각 부분의 비례가 좋고 얼굴 표정이 빼어나게 아름답다. 지난번 화재로 원통보전은 완전 소실되었으나, 다행히 건칠관음보살좌상은 안전한 곳으로 피하였다가 중건과 함께 다시 제자리에 봉안되었다.

원통보전서 바다 쪽으로 난 이쁜 길이 있다. ‘꿈이 이루어지는 길’이다. 현재 이 곳은 장애인들도 마음 놓고 오갈 수 있게 확장 공사 계획중이라고 한다.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낙산사의 상징 해수관음상이 우뚝 서 있다. 해안 절벽 위 16m 높이인 이 불상은 자비로운 미소로 사바세계를 굽어 살피고 있다.

동해를 벽으로 삼고 마치 면벽수도하는 모습이다. 해수관음상서 다시 바다 쪽으로 발걸음을 돌리면 의상대와 흥련암을 만날 수 있다. 깎아지른 해안 절벽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가 귓전을 때린다.

의상대 북쪽 300m 지점에 있는 흥련암(紅蓮庵)은 의상대사가 관음보살의 진신(眞身)을 친견하기 위해 기도하던 장소로 낙산사의 모태가 된 곳이다.

관음보살을 친견하기 위하여 온 의상대사가 굴속으로 들어가 파랑새(靑鳥)를 보고 그 굴 앞에서 밤낮으로 7일 동안 기도를 드렸다. 그러자 7일 후 바다 위에 붉은 연꽃(紅蓮)이 솟아나더니 그 위에 관음보살이 나타났다. 관음보살을 친견한 의상대사는 이곳

화재후 김홍도의 '낙산사도' 보고 원형 복원 템플스테이·무료국수·다도 등 체험해 볼만

에 암자를 세우고 흥련암이라고 이름 짓고, 파랑새가 사라진 굴을 관음굴(觀音窟)이라 불렀다.

지금의 흥련암은 1975년의 중창 때 지어졌으며, 안에 봉안된 탱화 역시 같은 해에 조성되었다. 밥당 마루에는 8cm의 정사각형 구멍이 나있다. 이 구멍을 통해서 의상대사가 관세음보살을 친견했다는 10m의 낭떠러지 바위 틈새를 볼 수 있다. 이 바위 틈새는 관음굴이라고도 하는데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거나 오체투지를 한 자세여야만 내려다 볼 수 있다. 낙산사를 한 번 방문한 사람은 욕심이 생긴다. 이렇게 단 몇시간 머무를 것이 아니라 몇일씩 묵으며 마음의 찌든 때를 벗어내고픈 욕심말이다. 이런 이들을 위해 낙산사측은 템플스테이를 상설로 마련했다. 템플스테이의 주제는 ‘파랑새를 찾아서’이다. 의상대사가 파랑새에 이끌려 관음보살을 친견했듯,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마음속 파랑새를 찾아 명상에 잠기고 바닷가를 산책하는 프로그램들이다. 홈페이지

지서 예약 가능하다. www.naksansa.or.kr/낙산사_템플스테이 (033)672-2417

낙산사 회주 정념 스님은 “불자들은 물론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화재가 난 이후 8년 동안 성공리에 복원봉사를 마칠 수 있었다”며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언제든지 편히 될 수 있는 쉼터와 문화공간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양 낙산사=김주길 기자 kimji4217@hyunbul.com

여행수첩

■낙산사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무료 국수 공양**=절을 찾은 불자와 관광객 모두에게 무료로 국수를 대접하고 있다. 매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2시간 동안 낙산사 다래원 앞에 마련된 '무료국수 공양실(식당)'에서 제공된다.

▲**무료 차집**=중무소 옆 설선당에 가면 누구나 무료로 차를 마실 수 있다. 봉사자가 녹차를 우려 내준다. 차를 마주하고 앉아서 창밖 풍경을 내다보면서 천천히 다도를 음미해 보자.

■낙산사 주변 볼거리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033-671-2000)=볼거리가 제법 있다. 영상자료를 상영하는 곳에 들어서 동영상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어린아이가 있다면 한 번쯤 둘러서 원시인들의 삶을 탐구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일현미술관**(033-670-8450)=1만여평의 야외 조각공원과 160여평의 실내 미술품을 전시하고 있다. 특히 동해가 바라보이는 야외조각 공원은 환상적이다.

■숙박

▲**양양 쉼비치**=스페인풍으로 지은 고급 리조트다. 호텔과 리조트



의상대사가 관음보살 진신을 친견하기 위해 기도하던 흥련암



설선당에 마련된 무료다실서 방문객들이 차를 마시고 있다.

로 나뉘져 있으며, 실내와 워터파크가 있다. ▲**낙산 에어포트 리조트**=해수탕으로 유명하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예약하면 비교적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맛집

막국수로 유명한 동호면옥(033-673-336)과 곰치국이 맛있는 동일식당(033-72-1563), 민물어탕을 하는 천선식당(033-672-5566), 섬국이 유명한 담치마을(033-673-0012) 등이 있다.

■찾아가는길

서울에서 갈 경우 서울출천고속도로→동흥IC→인제→원통→한계령→양양→낙산사. 경부 또는 중부고속도로→영동고속도로→하조대IC→양양→낙산사



자비로운 미소를 띠고 있는 높이 16m해수관음상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II

- 광명 만덕·자재 만현 -

운주사 불교서적 연속 20주 베스트셀러 1위
교보문고 종교서적 13주 베스트셀러 1위

개정판

이 책을 수행인의 양심으로 역사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부처님이 무아속 절대계에 여여히 계시고 불신으로 한국 땅에 오셨음을 증언한다”

삼매에서 친견한 부처님의 친설을 담아 윤회와 사후세계에 대한 진실을 밝혔다!!

출판사 T. (033)243-1795, 243-1787 불서출판 운주사 T. (02)3672-7181 ※ 각종 인터넷 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리브로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무엇인가? 인간의 탄생 - 우주 삼라만상은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등 만고의 비밀을 파헤친

이 시대 최고의 철학·종교서!

붓다의 가르침에서 바라본 **세계종교**

김수·자재 만현 크스님 글·법장 김종섭 715쪽 | 값25,000원

▶ **달라이 라마 Dalai-Lama XIV의 우주기원 5대 의문에 대한 대답을 제시한 이 시대 인류가 읽어야 할 양서!**

* **누구나 읽어야 할 영산불교 현지사의 양서**

- 영혼체 문화론 (158쪽/10,000원) - 2천년간의 무아와 윤회주체의 모순을 해결하다.
- 관음태교 (227쪽/10,000원) - 영혼체 태교법인 관음태교의 이론과 실제
- 부처님께서 주관하시는 천도제 (33쪽/무료배포) - 현지사 천도제 안내